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문형표 복지부 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최우수 기관 서울성모병원 방문



3월 20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복지부 주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터를 방문했다. 보건복지부가 가정호스피스 시범적용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병원의 실태 파악과 환자와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팀장 라정란 수녀의 간략한 브리핑 후 함께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병실방문을 통해 암환자 및 가족들에게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 대만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 참여

4월 29일 ~ 5월 2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매 2년마다 개최되는 APHC(Asia Pacific Hospice Conference)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직원과 봉사자가 참여하였다. 대만 Tzu Chi 호스피스 기관 견학, 소아 호스피스 영화 관람, 다양한 강의에 참석하여 국외 호스피스에 대한 최신 지견과 경험을 확인하고, 2013년 ~ 2014년 2년간 진행했던 한국&대만 호스피스 봉사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만 봉사자와 호스피스팀원들이 상호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봉사자팀 생명의 신비상 수상 및 호스피스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개최



5월 18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팀이 지난 2월 1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주최

한 '제9회 생명의 신비상' 활동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위원회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의 완성에 이르도록 보살피고 생명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늘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환우와 그 가족들 곁에서 동행하는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었다. 생명의 신비상 수상을 기념하여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 활동한 봉사자와 직원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고자 5월 18일에는 Home coming day 행사를 개최하였다. 125명이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호스피스 일대기를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자원봉사자가 마련한 축하공연을 통해 참석한 모두가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대교구 가정호스피스

▶ 사별가족, 봉사자 나들이



4월 13일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한 대구 유일의 수목원으로 환자 대상자 4명, 사별가족 1명, 봉사자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다. 비록 흐린 날씨에 쌀쌀한 날씨였지만 처음 수목원 오신다며 온실의 선인장을 보며 감탄하였고 신부님과 함께 한 월남쌈 사브샤브 요리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 본다며 고기를 잘못 잡수는데 이렇게 먹으니 많이 먹을 수 있다며 무척 기뻐 하셨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확산 특강



2월 16일(월) 본원 4층 베네딕도 홀에서 200여명 이상이 참석하여 김숙남 교수(부산기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본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의미와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한편 청각 언어 장애우들도 참여하여 수화통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 부활계란 선물 & 환자 및 가족 특식 행사

4월 6일(월) 본원 10층 완화의료센터에서 환자와 가족들과 예수부활의 참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부



활장식을 만들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 만찬을 기억하며 행복한 나눔의 식사 시간을 가졌다.

▶ 기타 소식

①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심화 교육

3월16일, 5월18일 4층 베네딕도 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심화교육으로 ‘그리스도 영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한중민신부(원목사제)의 성숙된 나눔, 동감과 연민의마음으로 환자에게 이웃이 되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신부님의 말씀이 있었다.

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피정

4월20일 아가페수녀(영적돌봄)의 지도로 오륜대 명상의 집에서 “성향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들의 피정이 있었다. 하느님이 주신 우리 고유의 본성을 존중하여 환자와 가족들, 봉사자 상호 관계에서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도 긍정적이며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느꼈다.

③ 통증 캠페인

5월 19일(화), 10시부터 14시까지 원내 통증캠페인 활동으로 1층 로비와 10층 프로그램실에서 기념품, 통증리플렛 배부, 통증교육 및 질의 응답 행사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또 원외 통증캠페인은 5월 16일(토),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 7권역 완화의료전문기관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었다.

가톨릭대학교 부산성모병원

▶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성탄행사



2014년 12월 22일 호스피스병동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성탄행사가 진행되었다. 호스피스팀은 환자들을 위하여 합창,

덴스를 준비하여 선보였고 입원 환자들은 직접 노래를 부르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혈액종양내과 진중률 교수가 산타클로스로서 변신하여 선물을 제공하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 봉사자를 위한 신년미사



1월 7일 을미년을 맞이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위해 애쓰는 봉사자들을 위한 신년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에는 약 17명의 자원봉사자와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um,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손수 준비한 떡국을 함께 먹으며 을미년을 다시 한번 맞이하였다.

▶ 사별가족 आय회



4월 29일 호스피스 사별가족들은 그동안의 어려움과 슬픔을 함께 환기하고자 산정호수로 आय회를 다녀왔다. 사별가족 및 호스피스팀원 22명이 함께 하였으며 맛있는 식사, 산정호수 산책, 단체 게임을 함께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봉사자들과 사별가족들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아픔과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일반인을 위한 건강강좌

5월 15일 금요일 일반인을 위해 '암과 삶'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하였다. 암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혈액종양내과 진중률 교수의 강의를 진행되었고, 방사선치료란? 주제로 방사선종양학과 유미

나 교수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본원 영양팀 영양사로부터 암환자를 위한 푸드테라피 강의가 진행되었다. 총 92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의 이후 암환자를 위한 산우회가 함께 산보를 하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 의료인을 위한 암, 통증 강의

5월 27일 '통증을 말합시다' 암 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통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원내 의료진(간호사, 의사 포함) 약 100명이 참석하였고 말기암 환자와 이에 대한 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하여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순천성가를로병원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피정



4월 15일 전라남도 1004의 섬 압해도 신장공소에서 가톨릭대 오경섭 신부님의 강의로 시작한 피정의 주제는 참되고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었다. 또한 신부님의 삶에서 깨달은 실천방법인 "그래! 그럴수 있어!"라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건전한 심리 상태에서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전수 받은 피정이었다.

▶ 사별가족 आय회



5월 20일 사별가족 आय회를 백운산 휴양림에서 가졌다. 황토길을 산책하며 앞서 보낸

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장기자랑 후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점심식사를 했다. 마음껏 웃어보는 레크레이션 시간 후에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한 염원과 소망을 적어 희망풍선도 날렸다.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후원자와 봉사자를 위한 신년미사



1월 23일 환자와 가족, 후원자, 호스피스팀,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1부는 의정부교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의 집전으로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성당에서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신년미사를 봉헌하였다. 2부는 2014년 센터활동 및 결산보고 후에 즐겁고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자원봉사자 모임

그동안 본 센터를 위해 힘쓰셨던 노유자 수녀님께서 이임하시고, 최귀령 수



녀님께서 새로 취임 하셨다.(2015.2월) 3월 6일에 최귀령 수녀님과 처음으로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후원자와 봉사자의 날 모임을 개최했다. 본 센터의 발전과,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으로 박명숙 세실리아(서울시 찾아가는 평생교육)전문 강사의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통이야기-공감과 경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성모님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아름다운 꽃들과 신록이 어우러진 5월 16일 본 센터 프락에서 환자와 가족, 후원자, 호스피스팀, 자원봉사자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모님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후원회원으로 구성된 남녀 혼성 중창단의 노래와 비올라, 피아노 연주, 아름다운 우리 민요에 흥겨운 가요까지 다채로운 노래들로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최종근 파코미오 원장 신부님을 모시고 자애로운 성모신심을 찬송하고 공경하는 사랑 나눔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가톨릭대학교 성 바오로병원

▶ 즐거운 성탄행사

12월 24일, 환자,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겨드리고자 성탄행사를 개최하였



다. 성탄행사를 위해 간호사들의 자녀들과 수녀님들이 수고 하셨고 첼로의 멋진 연주로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었으며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 해준 마술쇼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탄이 되었다.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5월 20일 '호스피스대상자의 신체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오은숙 간호사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기본간호에 대한 강의 후에 자리를 옮겨 직접 실습도 해보는 기회도 마련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날들이

5월 20일 화창한 햇빛과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날, 환자와 가족을 비롯한 팀원들이 영회원으로 나들이



를 다녀왔다. 활짝 핀 꽃을 보며 산책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사진 속에 가득 담아 온 참으로 기분 좋은 날이었다.

▶ 사별가족모임 개최

4월 15일 사별가족모임을 통해 사별의 슬픔을 나누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희망을 이야기하였으며 영성부 원장 신부님이 집전하신 미사에서 고인을 위한 꽃을 봉헌하였다. 모임 후,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6월에 예정된 사별가족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함께하는 우리' 사별가족모임 8주 프로그램 진행
3월4일부터 4월22일까지(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 남편을 사별한 부인들을 대상으로 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아픔이 같지 않기에 자신들을 직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했던 분들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



램 과정을 마친 후 그들만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 제15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공로상 수상

3월 5일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가 주최한 제15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에 고정인(벨라뎃다)님이 우수봉사자상을 받았다. 1997년에 봉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19년간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현장에서 봉사한 결실이다.

익산성모병원

▶ 제15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제8회 정기총회 참석

3월 5일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제8회 정기총회에서 기관 공로상을 받았다. 올해로 익산성모호스피스가 10주년을 맞이하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호스피스팀원과 봉사자들이 투철한 봉사를 다짐 하였다.

▶▶ 제11차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APHC) 참석

4월29일~5월3일 4박5일로 대만 타이페이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APHC가 있어 장영선 병원장수녀와 이숙희 간호과장 수녀, 김혜경 원무과장, 진미정 수간호사가 함께 참석 하였다. 23개국 1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는 78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5월1일 개막식과 더불어 날자 별로 각 나라의 호스



피스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 주제 발표와 강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만국립대학과 대북의학대학 부설병원의 호스피스병동을 견학을 하였으며 호스피스 제도화가 체계적이며 선진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참석

5월28일 전북지역연계 호스피스 심화교육이 전북 대학병원에서 있어 봉사자 3명이 다녀왔다. 주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말기 암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 황관옥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회장이 강의 하였다.

▶ 호스피스 봉사자 소풍



5월29일 익산성모병원 자원봉사자 59명의 나들이가 있었다. 담양 죽녹원을 거쳐 점심을 먹고 소쇄원을 다녀왔다. 숲 해설가의 안내를 받으며 자연의 정취를 흠뻑 느끼고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어 봉사자 서로간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2015년도 기관대표자회의 개최

3월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미셀푸드 Viproom에서 기관대표자회의가 있었다. 전국각지에서 21명의 기관대표자들이 참석하셔서 협회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제8회(총24회) 정기총회 개최

3월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23명의 대의원들 중에 22명이 참석하여 2014년도 사업보고와 2015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였으며 그동안 호스피스에 헌신하여 다양한 봉사를 해 오신 익산성모병원이 기관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안중배(베네딕도)신부님이 집전하신 미사전례가 있었다.



▶ 제15회 전국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3월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이소우, 노유자, 김혜자, 박재순 역대 전임회장님들을 모시고 전국의 15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그동안 헌신적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신 박태규(남원의료원), 신정자(대구대교구), 이정숙(대전성모병원), 오정자(순천성가롤로병원), 이천상(성가복지병원), 임동후(성바오로병원), 고정인(여의도성모병원), 박봉임(인천성모병원), 8분의 봉사자들에게 우수봉사자상을 표창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박준양 신부님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란 주제로 마음을 깊이 감동을 주는 강의를 있었다.